

#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제4차

(速記錄)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18. 5. 18. (금) 15:00 ~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 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제4차

- ◆ 일시 : 2018. 5. 18. (금) 15:00 ~ 17:00
-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 참석자 (7명)
  - 위원장 : 000
  -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 배석자 : 000 팀장, 000 주무관, 000 주무관
- ◆ 심의안건 (총 3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 1건
    - 효령대군 이보 묘역
  - 국가 지정문화재(지방검토사업) 현상변경 허가 심의 : 2건
    - 서울 호암산성
    - 서울 초안산 분묘군

(개의)

○ 000 위원장

시작하시죠.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효령대군 이보 묘역(유형문화재 제12호)

(강서구청 관계자 입장)

○ 서초구청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청에서 왔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이것은 작년에도 심의에 상정했던 것 같은데요. 신 신도비를 이전 설치하고 그 자리에 효령대군 동상을 설치하려는 계획인데요. 작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관에 위배되고 동상은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권사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건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청권사 관계자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 문화재 설계자

안녕하십니까? 앞서 서초구청 000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으로 신 신도비와 효령대군 동상 교체 설치 및 이전 설치 계획안의 재심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개요부터 신 신도비 이전 예상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파일이 교체된 것 같은데요. 원래 큰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신 신도비/효령대군 동상 교체 설치 및 신 신도비 이전 설치 건이 되겠고요. 1차 심의 결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 신도비를 구 신도비 주위에 이동하는 것은 경관에 위배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는 저희 청권사에서 이보 묘역에서 효령광장은 많은 행사 및 그 밖의 관람객들이 효령대군 비각과 이보 묘역으로 이동하는 동선에 위치함으로써 비문 등 신 신도비의 그 뜻을 기릴 수 있으며 트여 있는 공간에 위치한 곳으로 경관에 위배되지 않은 곳이라 사료되어서 이번에는 구 신도비 주변이 아니라 신 신도비를 효령광장 비각 우측 방향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상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은 효령대군에 관계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유산물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밖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나 그밖에 입구에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여겨졌고요. 그래서 효령대군의 역사적 인식과 고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그래도 이보 묘역이고 또 타 장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후손들의 그 뜻을 기리는 것에 의미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져서 여러 번의 재고와 논의를 통해서 다시금 동상 설치의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잠깐만요. 그 사업취지 목적과 필요성, 진행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심의결과 및 검토사항을 읽으셨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문화재 설계자

여기 이보 묘역이고요. 저희가 원래 여기에 신 신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엔 여기 구 신도비가 있는 옆으로 신 신도비를 이전하고 여기에 동상을 설치하고자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신 신도비를 여기 이보 묘역으로 올라가기 전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령대군 비각이 있는, 앞에서 보면 좌측이고 비각을 등지고 보면 우측인데 이 부분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효령대군 동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신 신도비가 되겠고요. 여기가 구 신도비, 효령대군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령대군 동상이 설치될 위치가 이곳이 되겠고요. 설치배치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재실 앞에 판석이나 그밖에 주변경관을 좀 더 좋게 하고 보이는 공간만큼 공사를 해서 예쁘게 단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상의 재현 계획으로 보면 저희가 유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된 효령대군 영정 초상화를 그대로 동상으로 재현을 하는데 동상으로 재현했을 때 기존의 동상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동상들이 설치되는 것이 황금빛이나 그밖에 동색으로 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너무 확 드러나면서 뭔가 고전적인 경관들하고 어울림이 없다고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산화동철이라고 해서 이미 동이 부식이 되면 약간 녹색 톤으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거기에 동상이 설치됐을 때에도 거부감이 있기보다는 친숙함을 주고자 그렇게 동상의 표면 처리를 시도해봤습니다.

동상 사진을 보면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가 되겠고요. 실제로 단상의 높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이렇게 일대일 구성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는 3m 20cm 정도 되겠고요. 동상 자체로는 1,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상 자체가 아주 거대한 동상이 아니고 실제로 앉아 있지만 제 키보다 약간 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낮은 것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것이 경관상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치 예상도에서 상세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의 동상 부분은 원형으로 작업을 해서 그것을 캐스팅하고 그다음에 다시 청동주물로 복원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산화동 처리를 해서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고풍적인 컬러로 표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표면 처리가 된 동상 컬러는 현시대에 많이 진행되는 동상들이 갖고 있는 컬러보다 훨씬 이 컬러가 유지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미리 산화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이상 부식되는 것이 방지되고요. 지금 동상이나 그밖에 형상들을 만드는 작업에 쓰이는 색깔들은 그 겉 표면에 클리어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코팅이 벗겨지면 다시 코팅을 입히는 번거로움이 있다면 본 색깔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색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재실이 있고요. 기존에 신 신도비가 있던 곳에 이렇게 설치 예상도를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상이 설치되더라도 시각적으로 거부반응이 없이 정말 여기에 잘 어울리고 후손들의 뜻이 잘 기려질 수 있게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 신도비 이전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 신도비하고 신도비문 해설이 옆에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보시는 것과 같이 효령대군 비각 쪽으로 해서 옮겨지는데요. 이 장소가 사진상으로 보면, 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신도비 위치에 있던 것들이 실은 들어가면서 보면 굉장히 빼곡하고 여기 장소가 좀 비좁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비문 자체의 크기와 그다음에 신 신도비 자체의 크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동상을 설치했을 때는 좀 더 여기 공간이 시원하게 트여 있는 공간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할 위치는 여기가 비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권사에 관계하셨던 대표 분들께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문 같은 것들을 그 전부터 조금씩 설치를 했던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비각 옆에 설치했을 때 여기 보시면 효령광장에서 여기가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숲이 있고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 계단으로 해서 효령대군 이보 묘역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많은 행사가 이뤄지고 시각적으로도 여기 뒤에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 신도비가 놓였을 때 경관에도 가장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번 검토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끝에 이곳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신 신도비가 있던 자리에 조금 전에 보셨던 효령대군 동상을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상정하고자 올렸던 형태들보다는 조금 더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3D 작업을 통해서 이곳에 놓였을 때 얼마큼 경관에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효령대군과 관계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다면 어느 곳이라도 좀 더 고민을 해봤겠지만 효령대군 관계된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청권사가 가장 명성이 있고 적합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다시 한 번 기존에 있던 내용이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 000 위원

신도비를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도면이 없는데 이전하는 신도비의 바닥부터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재 설계자

이것도 같은 3m입니다.

○ 000 위원

바닥 넓은 데에서 3m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재 설계자

예. 여기 기단 포함해서 3m입니다. 그래서 기단은 실제로 저희가 사진상으로 옮겨서 그런데요.

○ 000 위원

사진이 조금 옮긴 위치에서 신도비가 작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요.



- 문화재 설계자  
예. 원근법으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 000 위원  
비각 안에 들어 있는 비는 어떤 건가요? 묘 조성할 때 같이 세웠던 비인가요?
- 문화재 설계자  
맞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입니다.
- 000 위원장  
비각 안에는 그림 무슨 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효령대군과 부인 되시는 분 묘비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구 신도비는 이쪽 밑에 있고.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실제로는 저 비각보다 비가 저 사진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 문화재 설계자  
참고로 정면에서 보이는 것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비각을 잘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 000 위원  
구 신도비는 문화재인가요?
- 문화재 설계자



문화재입니다.

○ 000 위원

구 신도비는 문화재가 아니죠?

○ 문화재 설계자

문화재가 아닙니다.

○ 000 위원

구 신도비가 잘 안 보이니까 새로 한 것 같고, 한문을 한글로 옮겨놓은 거죠.

○ 문화재 설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원래 신도비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신 신도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고 왜소하고요.

○ 000 위원장

옆에 있는 해설비가 한글이죠?

○ 문화재 설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지난번에 구 신도비 옆으로 옮긴다고 한 것이 부결된 거죠?

○ 문화재 설계자

예. 그리고 동상 설치 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문화재 구역 안에 동상을 설치하지 말고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드렸지만 검토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후손들께서 자비를 들어서 기념을 해보고 싶은 뜻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 000 위원장

설치할 곳이 문화재구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도면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 000 위원

문화재구역 안에 있어요.

○ 문화재 설계자

앞부분으로 다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신 신도비가 있는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 000 위원장

예. 처음에 저기서 저게 다 문화재구역 안인 거죠?

○ 문화재 설계자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가 실은 문화재구역 안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 신도비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가 정문을 통과해서 가면 바로 보이는 곳이고요. 여기가 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신도비는 여기에 굉장히 소규모로 가려져서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장은 지금 여기 숲 뒷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 뒤편으로, 이게 문화재가 아닌 관계로 문화재인 비각 옆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상이지만 너무 이렇게 웅장하지는 않은 동상을 통해서 좀 더 효령대군의 뜻과 업적을 기려보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첫 번째 안은 신 신도비라고 구 신도비 옆으로 옮기고 동상은 지금 그 자리에,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동상 위치는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는 거죠?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장  
그러면 신 신도비를 세우는 것은 문화재 구역인데 허가 받고 세웠습니까?  
신 신도비를 처음 세운 것.
- 문화재 설계자  
예. 신도비는 문화재구역이지만 그때 현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허락을 받거나 크게 하지 않고 1970년도에,
- 000 위원장  
아직 그게 없을 때?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문화재 구역에 경관만 해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왜냐면 저기 신도비 터가 이미 깎아서 신도비를 앉히고 훼손된 그런 상황입니다.
- 000 위원  
신도비 세운 연도가...
- 000 위원장  
신 신도비.



○ 청권사 관계자

90년대에 허가 없이 세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저기는 이미 훼손된 자리지.

○ 문화재 설계자

그래서 그 전에는 문화재 안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신 신도비 설치한 것을 보면 문화재 비각 옆으로 너무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어느 선까지 있었던 건지 도면을 보면...

○ 문화재 설계자

이것은 비각에 대한 해설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게 그냥 문화재이고 이 비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해설문입니다.

○ 000 위원

신 신도비랑 해설비를 옮기고 난 뒤에 원래 문화재가 왜소하게 보인다가 나 좀 더 초라해 보인다가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 문화재 설계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은 거리상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측면에서 찍어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공간이 꽤 깊습니다. 그리고 기단이 되어 있어서 행사하고 그랬는데 이 비각 옆으로 해서 15m 정도 떨어진 구역입니다.

○ 000 위원

효령광장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재실에서는 제사를 지낼 거고.

○ 청권사 관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거기서 서초구청 주관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도 하는 용도입니다.

○ 000 위원장

지금 동상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 문화재 설계자

아닙니다.

○ 000 위원

동상이 영정사진과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 문화재 설계자

이것은 컴퓨터 작업으로 해서 실제로 복원작업이 완벽한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전문가 분들한테,

○ 000 위원

시뮬레이션이에요?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처음에 왔을 때는 영정 그 색상 그대로 해서 거부감을 많이 일으켰죠.

○ 000 위원

지금 효령광장 가로/세로 폭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재 설계자

40~50m 됩니다.

○ 000 위원

다른 곳에 그런 색깔의 재료를 가지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문화재 설계자

이런 동상 형태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상보다는 그 전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동상들이 의외로, 실은 저도 전공이 조각이라서 조각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만, 이 동상의 청동 자체가 부식되는 색은 원래 이 색인데 어느 결에 현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너무 눈 부신다고 그럴까요. 형상된 게 거부감이 드는 색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되게, 그런데 예전 것들은 되려 자연부식을 통해서 저런 녹색 톤으로 나올 수 있게. 유럽 쪽이나 그밖에 여러 곳을 가도 그 동상들이 저런 색을 통해서 고대의 조각들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주변에 볼 수 없는 색깔이고.

○ 000 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없죠. 1970년대까지 만들어진 것은 저게 많아요.

○ 000 위원

예. 그래서요. 왜 저렇게 만들까 싶어서요.

○ 000 위원장

그런데 확실히 번쩍이는 색보다는 낫죠. 혹시 동상의 좌대부터 해서 꼭대기까지 약 3m 20cm라고 했죠?

○ 문화재 설계자

사람이 서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실은 기단을 낮춰달라고 결정을 내려 주시면 실은 1m 정도,

○ 000 위원장

너무 과대해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000 위원

기존의 신도비보다 약간 낮든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문화재 설계자

예.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 000 위원

그것을 치워버리니까 신도비는 폭이 넓어서 더 높아 보이는데 동상은 머리가 작아 보이니까 그게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 000 위원장

낮아보여서 친근감 있는 게 낮죠.

○ 문화재 설계자

기단의 높이가 1,500~1,600cm 정도 되는데 그것을 1,200cm 정도로.

○ 000 위원장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시라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안목으로 볼 때 가장 편안해 보이고 균형 있어 보이게끔 그런 사이즈를 제시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 문화재 설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사이즈는 보통 기단을 설치할 때 1m 이하로 하면 누군가 올라간다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1.5m 이상 정도로 기단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관람을 하시는 곳이라서 제 생각에는 1,200cm 정도로 낮추면 전체 높이가 1,200cm하고 이 높이하고 해서 아까보다는 30cm 정도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하면,

○ 000 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다시 의논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재 설계자

예. 감사합니다.



(서초구청 등 관계자 퇴장)

○ 000 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안건이 효령대군 동상 교체 설치 및 이전 설치 계획인데 ‘교체 설치’라는 것은 뭐죠?

○ 000 주무관

비각과 교체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000 위원장

동상을 세우는 게 목적이군요.

○ 000 위원

동상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문화재구역에 동상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기는 동상 대신에 신 신도비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옮기고 대신 동상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떤 면으로 보기에 이미 훼손은 되어 있었고.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 000 위원

신 신도비가 있는 것보다는 저게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요.

○ 000 위원

신 신도비는 구 신도비 쪽으로 가는 게...

○ 000 위원

아니요. 그쪽이 아니라 새로 저 위로, 안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게...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러니까 지금 신도비 새로 들어가는 위치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보는 게.

○ 000 위원

어차피 그쪽이 현상변경을 받아야 하는 곳이니깐요.

○ 000 위원

그리고 사진으로는 다각에서 찍어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니까 광장의 폭이 40~50m 되는 것 안에 건물 폭은 비각은 2.5m 이내일 거거든요. 그게 귀퉁이에 있고 그 긴 면 어디인가 덧대는 건데 정확하게 그것을 표기는 안 했어요. 그 상황이 정면에서 보면 저 사진보다는 거리가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효령광장의 위치를 정확한 거리 같은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림만 딱 그려놔서 이게 좀 불분명...

○ 000 위원

예. 이격거리나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잡아왔어야 해요.

○ 000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문화재구역인데 허가를 안 받고 자기들이 신 신도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는 문화재구역이라고 보고 심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기가 3m 20cm 정도 되면 꽤 커요. 여자 키 160cm이면 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되더라도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낮춰야 할 부분이고 색깔도 요즘 쓰지 않는 되게 이상한 색깔인 것 같아서 신도비일 때는 기와 색깔이랑 같아서 표시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색깔을 저렇게 하니까 약간 형광 빛도 나는 것 같고.

○ 000 위원

저는 복식이 그림과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복식이 그림 같지 않잖아요. 물론 그냥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앉아 있는 그림과 저것과는 다르거든요.





○ 000 위원장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논해야 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문화재구역에 이미 있었던 신 신도비를 옮기고 대신 하는데 이것을 허락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옮기는 지역의 신 신도비를 허락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상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소위 말해서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던 뭔가를 자꾸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화재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운영 보존 측면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게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처음 심의할 때 그 문제가 많이 얘기됐는데요. 지금은 재심의를 해서 그 문제는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그런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지난번에 동산 부분도 부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유족들이 돈도 만들어서 뜻을 기리려고 하는 좋은 뜻이니까 통과해달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신 신도비 들어가고 하면서 한 번 훼손됐으니까 이왕 훼손됐으니까 그냥 덮으면 처음에 동상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원칙을 저희가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게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000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 문화재구역 외에 설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아봤지만 역시 이 자리가 제일 좋다.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저것은 청권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로 하지 않고 문화재 외의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검토했더니 이렇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국가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효령대군을 문중에서 현창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창하는 그 측면하고 두 개를 봤을 때 사회 공익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느 게 가중치가 더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000 위원

저번에도 이게 부결된 사항이에요.

○ 000 위원장

그래서 그때 부결이 됐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올라올 수 없는데 검토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검토해서 올라온 거예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죠.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보면 구 신도비도 없애고 이것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 000 위원

그런데 신도비는 새로 만든 것은 90년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는 것을 여기서 허용하면 그다음에는 ‘후손들의 좋은 뜻’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게 들어가면 그다음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유족도 그렇게



되면 “저기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또 곤란해지죠.

○ 000 위원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여기 효령대군에 해 주면 다른 대군들 묘역에도 똑같은 식으로 계속 다 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해서 부결이 됐어요.

○ 000 위원

이 건물은 문화재적 가치는 없잖아요.

○ 000 위원

다른 쪽에 세울 수도 있는데도 굳이 저렇게...

○ 000 위원

이 문화재는 현재 묘역이 중심인데 묘역을 하면 이 부분만이 사실 문화재 지역이거든요. 건축물 있는 데는 사실 큰 영향을 받는 데가 아니에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문화재는 여기인데, 아마 또 나중에 이렇게 하면 민원상 문화재 보호구역을 아예 잘라달라고 나오게 되면 또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 000 위원

그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 000 위원

왜 이렇게 넓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넓게 잡혀져 있어요.

○ 000 위원

가상인데도 굉장히 커요.

○ 000 위원

세종대왕 맞먹게 만들어 냈죠.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래서 지금 나는 속으로 세종대왕 그 동상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 000 위원

상당히 작은 겁니다. 얼마 전에 영릉에 있는 세종대왕에 비하면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사실 청권사는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 건물들 있잖아요. 이게 다 문화재구역에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 원래는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문화재구역을 호소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000 위원님처럼 문화재구역만 하고 이것을 갖다가 잘라놓으면 일이 쉬운 건데.

○ 000 위원

차라리 잘라서 묘역하고 이쪽을 구분을 하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 000 위원장

우리가 여기서는 문화재구역이라고 하면 보호구역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000 위원

여기가 따로 되어 있어요. 건물은 보호구역 선 안에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하신 이 동상 부분은 문화재 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 000 위원장

여기에서는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 000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점선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문화재 선이고요.

○ 000 위원장

여기 있네요, 문화재 선.



○ 000 위원

동상은 제일 왼쪽 부분에 있는 건물 바로 옆이기 때문에 문화재 선 안에 있어요.

○ 000 위원

그리고 문화재 선 바깥이라도 노란 건물 주변과는 지형이 안 돼요. 뭐가 설 수가 없고 만약에 거기를 한다고 하면 지형 훼손이 되니까 불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각 옆이라는 게 묘표를 거기에 멀리 놓은 거죠? 옮겨 온 건가요?

○ 000 위원

묘표도 옮겨온 거죠. 원래 이 봉분 바로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마 자연적으로 훼손이 심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보호하려고 해서 옮겨서 비각 세우고 했을 거예요.

○ 000 위원

신 신도비가 그쪽으로 가는 게 별로, 일단 문화재 구역 안에서 그 옆에 놓는 게...

○ 000 위원

그렇죠. 비각이 문화재이고 구 신도비 문화재가 또 밑에 있는데 신 신도비를 문화재 옆에 설치해놓으면...

○ 000 위원

저는 그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묘비 자체가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장소적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 000 위원

문중에서는 자기 집안사람 이외에 일반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문중 공간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관람을 하거나 이러면 무덤 있는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일반 관람객들한테 보여줘서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이랬다.' 이렇게 현창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죠.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겠죠.

○ 000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형제간이 있잖아요. 사당 쪽에 양녕도 있잖아요. 양녕 문중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우리도 하겠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 신도비를 옮기는 것 자체도 이것 때문에 다 연결되니까 동상을 넣기 위해서 신 신도비를 또 옮기는 거니까 계속 변형, 변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양녕대군을 그렇게 대중적으로 현창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누가 동상이 있고 신 신도비가 있고 저기 가서 현창을 하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옛날 방식대로…

○ 000 위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부결이 됐던 거예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결정할 수밖에 없네요. 대체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양녕 거기는 제가 거기에 관여를 좀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현창하겠다, 시설물 하겠다고 그 돈 가지고 하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에 양녕을 현창하는 학술모임 같은 것을 꾸려서 만든 게 도광포럼이에요. 사람 500명이 지금 나와요. 거기에 문중에 또 강당 이런 게 있어서 양녕을 연구하거나 양녕하고 관련되는 분을 초청해서…

○ 000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현창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 000 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왔지만 근본적인 문화재 구역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같은 이유로 부결이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입니다. 그러면 부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사유를 명확하게 간추려줘야죠. 문화재 외 구역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문화재 내 구역에 설치하겠다고 가져왔으니,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 경관을 해치므로 불가함’ 그렇게 해야겠죠.

○ 000 주무관

그러면 신도비가 남는데 만약에 동상을 설치하지 않고 신도비만 옮기겠다고 하면 허락되는 건가요?

○ 000 위원장

안 되죠.

○ 000 위원

그 자체로 현상변경이니까요.

○ 000 위원

신도비도 만약에 이전하더라도 보호구역 밖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가함.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없애라고까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죠.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죠.

**국가 지정문화재(지방검토사업) 현상변경 허가 심의**

**서울 호암산성(사적 제343호)**

(금천구청 등 관계자 입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 금천구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000입니다.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 소재 국가사적 제343호인 서울 호암산성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개요 및 사업에 따른 현상 변경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서울 호암산성 보수·정비 사업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국/시비 2억 2천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현상 변경 주요 내용은 호암산성 주변의 탐방로 정비, 성곽 내·외부 수목 정비, 문화재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공사 시행 전 실시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호암산성 보수·정비 공사에 따른 현상 변경 주요 내용을 마치고 현상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시 설계업체 관계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문화재 설계자

안녕하세요. 대연건축에서 나온 000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호암산성 보수·정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일단 사업은 문화재안내판 설치, 성벽 내·외부에 있는 수목 정비, 기존 탐방로 정비와 우회로 개설입니다. 저희 계획은 호암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장 자문회의를 거쳐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성벽 내·외부 수목 정비는 성벽 주변으로 잡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유구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기준으로 내·외부에 10m씩 총 20m를 벌목해서 하기로 계획하였고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전통수목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제외하고 이때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요. 기존의 추정지 구간에는 문화재 안내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이해에 부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구상이나 우물지, 건물지에는 기존 안내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안내판이 있는 곳도 문화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안내판 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정비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현황 사진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탐방로 정비인데요. 호암산성 내부 중앙으로 주 탐방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건물지 주변 지나다니는 곳에 유구가 드러나 있어서 탐방객들이 밟으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훼손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사로 덮어서 이쪽 정비 방안처럼 야자매트를 깔아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회로 개설인데요. 추정문지 쪽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등산객들이 유구를 밟으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추정문지를 로프난간으로 통행을 제안해서 그 주변에 우회할 수 있게, 그런데 주변에 다 성벽이 있기 때문에 상부로 넘어가는 목재데크 형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쪽이 북측 추정문지에 대한 사진과 데크 설치에 대한 이미지 넣었습니다. 남측에 대한 사진과 이미지입니다. 발표는 마쳤고요.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 000 위원

사적 넘버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 문화재 설계자

343호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쪽에 보면 밑에 문화재 현황에는 사적 제440호로 되어 있는 것은 2002년 3월 9일에 지정했다고...

○ 금천구청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인데요. 서울시에 보완자료를 낼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000 위원

예. 여기는 또 1991년 2월에 343호로 했죠. 이게 잘못 됐네요.

○ 000 위원

이게 수풀 잡목제거는 성벽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예. 지금 성벽 유구 위에 나무뿌리가 들어가 있어서 약물처리로 해서 뿌리까지 부사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000 위원

이게 올해 하고 나면 1~2년 정도는 그 상태로 가죠. 그런데 또 3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수풀 제거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 문화재 설계자

그래서 이번에 뿌리까지 제거하는 약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 000 위원

그런데 미관상 성벽이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잡목이나 풀 그게 성벽이 더 이상 유실되지 않는 보호망 역할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라성곽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성곽 같이 보이려면 성벽이 원래 쌓여 있는 형태로 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학계하고 지정하고 하는 처하고 지금 논란이 많아요. 복원을 해놓으면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냥 또 무너지고 그래서 특별히 관람객들이 많거나 등산객들이 많아서 성곽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성들에 대해서는 수목을 제거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발길 없는 이런 곳까지 전부 다 정비하겠다고 지자체에서 한다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 문화재 설계자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

8쪽에 성벽 상부 목재데크 만든다고 하는데 목재데크는 우회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의미도 있기는 하겠지만 성곽 안쪽에 이것도 일종의 조형물이라고 하나요, 건축물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 문화재 설계자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대신 기본정비계획안도 많이 읽어 보고 해봤는데, 유구를 건드리지 않는 방안으로는 서울성곽 이런 데에서도 데크로 넘어가는 형식이 요즘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거기가 성 쪽이기 때문에 급경사라서 저희가 다른 아까 가운데 탐방로처럼 토사를 해서 메우면 유실되고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복원을 하든가 아니면 데크로 유지를 해서 최대한 나중에 복원할 때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 000 위원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저것은 서울성곽에 대한 사례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저렇게까지 높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높이예요?

○ 문화재 설계자

유구에서 한 50cm만 띄워서, 저희도 너무 높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 000 위원

유구에서 50cm 띄우고 데크 난간의 높이는 얼마나 돼요?

○ 문화재 설계자

1.2m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부분이 수목 정비, 잡목제거 이런 부



분하고 두 번째로는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크 설치 또 뭐가 있어요?

○ 문화재 설계자

그다음에 로프난간은 문지 쪽으로 데크난간 우회로를 만들었는데 지나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 000 위원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 문화재 설계자

예. 못 지나가는 방안으로, 그 대신 데크에 올라가서는 관람을 할 수 있게.

○ 000 위원

안내판 설치예요?

○ 문화재 설계자

예. 안내판 설치하는 겁니다.

○ 000 위원

중앙에 건물지 있는 부분은 유구가 훼손되니까 흙을 덮고 그 위에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혹시 우회는 안 되나요?

○ 문화재 설계자

예. 여기가 바로 주변이 건물지와 우물지 사이에 난 길이고 이미 주 탐방로로 결정이 너무 되어 있어서.

○ 000 위원

건물지를 탐방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건물지와 우물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외곽이 드러나는 상황입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니다.

○ 000 위원

워낙에 탐방로였는데 발굴을 해보니 거기에서 건물지가 나왔다?

○ 문화재 설계자

네. 살짝 지반이 30cm 높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길을,

○ 000 위원

그건 발굴된 건물지는 아니죠? 발굴된 건물지예요?

○ 금천구청

예. 발굴되고 몇 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요. 발굴된 상태입니다.

○ 000 위원

아, 발굴된 것을 정비하지 않고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유구 사이를 피해서 탐방로를 만들겠다?

○ 금천구청

예. 참고로 2019년도 예산에 저희가 건물지와 그 주변을 보수·정비하고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건물지 방치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안 좋아서 건물지 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놓았습니다.

○ 000 위원

사람들이 유구 쪽으로 가지 않게 길을 확실하게 야자매트로 표시를 하겠다?

○ 000 위원

복원할 계획이 있나요?

○ 금천구청

예. 저희가 지금 제2우물지 예정지하고 건물지 주변을 내년도에 발굴 및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확보 여부는 몇 개월 더 있어야 하고요.

○ 000 위원

길도 다 서고 있는데 뭐 하러 또 복원을 합니까, 그냥 놔둬야지.

○ 금천구청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등산객이 여기를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봐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성곽 유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핑크색 줄, 그게 지금 길이죠?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그쪽으로 야자매트를 깔겠다는 거예요.

○ 000 위원장

거기에 야자매트를 까는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발굴해서 우물하고 건물지 등 여러 유구가 나왔는데 그중에 상태가 잘 남아 있고 사람들이 봐서 좀 뭔가 교육이 될 만한 것들이 제2우물, 건물지 몇 개, 나머지는 발굴된 결과를 보고서 내고 그냥 덮은 거예요.

○ 금천구청

성벽유구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밟고 지나가서 아무래도 훼손이 심한데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보호조치를 하게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이게 뭐야?'하고 갔는데 몇 번 가보니까 진짜 돌 하나하나가 소중한더라고요.

○ 000 위원

그런데 목재데크를 만들어서 우회시키고 넘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둥 간격이 몇 m예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파고 설치하는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이게 최대한 10cm 정도만 문히게 유구를 피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 대신 저희가 북측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우회로로 했어요. 성벽이 훼손된 구간으로 우회를 시켜서 최대한 성벽 유구가 없는 곳으로 우회시켜서 기초를 설치하기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 000 위원

저기는 밑에까지 들어가면 30cm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 문화재 설계자

예. 흙이 덮이는 것은 10cm 정도로, 예. 이것은 30cm입니다.

○ 000 위원

성벽 구간이 훼손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설치를 한다.

○ 문화재 설계자

예. 그쪽으로 최대한 우회를 시켰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게 돌로 쌓여 있는 성벽이 없다고 해서 그게 유구가 없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전문가 입회하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 문화재 설계자

예. 그래서 그쪽도 넘어가는 것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000 위원

여기 휴일이나 이럴 때 찾는 등산객이 얼마나 돼요?

○ 금천구청

제가 내년도 자료를 만들면서 표로 해봤는데 몇 만 명이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면 남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양이라서, 석수동이라서 그쪽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평일에도 많이 있고 주말에도 많이 오시고요.

○ 000 위원장

그리고 제2우물지 쪽에는 그렇게 한하는데 제1우물지 쪽에는 가만히 두는 거예요?

○ 금천구청

문화재 안내판 설치나 그런...

○ 000 위원

종합안내판이 3개, 개별안내판이 4개?

○ 금천구청

예.

○ 000 위원장

그리고 안내판은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것을 샘플로 했는데 그 샘플이 한 가지만 있어요? 몇 가지 샘플이 있나요? 여기 최근의 샘플이죠?

○ 문화재 설계자

이것은 종합안내판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그것대로 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많으니까 그것을 다 읽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나는 문화재청에서 나온 좀 다른 샘플은 없는가.

○ 000 위원

글자 포인트도 지정을 해줘야 해요. 디자인만 갖고 하면 뭐 보여야 하지.

○ 000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만 돼서 중장년층은...

○ 000 위원

문화재안내판에 요새 QR코드는 안 넣나요?

○ 000 위원

들어갈 거예요.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반사판을 설치해서 막아야 할 거예요. 사진을 못 찍어요. 찍으면 이게 반사가 돼서 글씨가 잘 안 나와요.

○ 000 위원장

예. 그래서 사진도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봤으면 해요.

○ 000 위원

메인동선이 주로 북문에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는 게 주 동선인가요?

○ 문화재 설계자

이게 사방으로... 이쪽 아파트 쪽에서도 오고 북쪽 추정문지 쪽이 관악산 쪽인데 거기에서도 오고 가운데 쪽에서도 삼막사에서 오고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석수역에서도 와서 사방에서 다 올라오세요.

○ 000 위원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런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등산로는 남문에서 북문 통과하는 길하고 불영암 쪽으로 올라오는 길만 있는가 봐요.

○ 문화재 설계자

여기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오시고 저쪽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도 저쪽으로 와서 가운데는 길이 없고 합쳐져서...

○ 금천구청

안내판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자 합니다.

○ 000 위원장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금천구청 등 관계자 퇴장)

호암산성 보수·정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보수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양쪽 내외 20m는 그냥 잡목만 제거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 000 위원

선별을 할 겁니다.

○ 000 위원

조금 전에도 전통 수종하고 나무가 큰 것은 보고 난 뒤에 결정하기로 했던 거라서, 조정하시는 분들이 자문 하에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요.

○ 000 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됐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말고 옆에 목재데크인가요, 난간인가요? 그것을 설치할 때 누군가가 입회를 하든지 전문가 입회를 해야 할까요?



○ 000 위원

그게 아마 설계에 들어갈 때 그 위치를 성벽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데를 아마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짚어뒀으니까 시공은 그 설계에 따라서 그 위치에 하게 되고 감독도 들어가구요.

○ 000 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그렇게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죠?

○ 000 위원

2억 2천입니다.

○ 000 위원장

결론은 통과?

○ 000 위원

예.

○ 000 위원장

그러면 통과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초안산 분묘군(사적 제440호)

(노원구청 등 관계자 입장)

○ 노원구청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문화과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000입니다. 금번 안건은 초안산 분묘군 유물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으로서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 시 재심의로 분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5월 9일과 15일 문화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해서 좋은 의견 많이 받았습니니다. 한편으로는 자치구 입장에서 먼 곳까지 모셔서 죄송한 마음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고요. 우선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 때 말씀을 주셨던 기본설계 미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짐작하셨듯이 행정청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온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승극철묘 실시설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에 기본설계 안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 설계를 맡았던 000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고요. 설계서를 보시고 현장에서 못 주셨던 말씀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국/시비 3억 2천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설계에서는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문화재 설계자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미 4월에 얘기가 다 돼서 실시 설계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실시 설계안이 2018년 4월 20일에 공사내용이 잡혔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숙지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 변경된 내용은 석물전시장을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에 대한 내용들 또한 금액 변경된 내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경공사에서 나무 식재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적용 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11월 29일에 받았던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의견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8년 5월 9일 그리고 15일에 받았던 자문의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데크 설치한 위치 전면 쪽에 석물전시장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9구역 하구 쪽에 발굴과 시굴조사를 일부 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그 부분들은 완전히 공사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승극철묘역만 내시·상궁 묘역을 모티브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내시설까지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경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은 승극철 묘소를 침해하고 있는 나무들을 일부 상수리나무나



소나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제거를 시켰고요. 그리고 차폐수목으로 소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하게 됐는데 자문의견을 주셔서 전나무와 주목나무 위주로 식재를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이쪽 이렇게 뒤편으로 처음에는 나무 수종을 명확히 선정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목나무가 괜찮다고 하셔서 저희가 주목나무로 변경하고 양 측면으로 산철쭉을 식재할 계획으로 설계안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나무 식재할 구간이었다가 이번에 전나무로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설계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예. 아주 설명을 짧게 간단하게 잘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 000 위원

조경 쪽으로 소나무를 심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원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흰색 배롱나무는 심지 말라고 했고 저기도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종류는 다 같이 주목나무까지 같이 심어도 되고.

○ 000 위원

15일에 제가 가서 전나무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정자를 가리려면 좀 더욱 높이 올라가야 하고 넓게 퍼져야 하니까.

○ 000 위원

그래서 저는 자문할 때 철쭉이라기보다는 철쭉류라고 해서 철쭉 비슷한 것을 다 같이 심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갑자기 종류가 딱 정해지니까. 왜냐면 좌우 양편으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000 위원

그런데 자라기는 전나무가 좋을 것 같고.

○ 000 위원

저기는 보통 배경수로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주목 이렇게도 쓰지만 정자 쪽 부분은 알아서 식재를 다른 것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딱 몇 가지만 정해 준다는 게 좀 그래서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묘목을 심는다는 거예요?
- 000 위원  
아니죠. 큰 나무. 차폐될 수 있게끔. 높이가 5m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문화재 설계자  
일단은 운반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3m 정도로.
- 000 위원  
3m는 너무 작을 텐데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정자를 그렇게 가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조금 적당히 차폐만 되면 되지.
- 000 위원  
아니, 가려지는 게 좋기는 하죠. 정자에 올라 있는 사람이 보기에든 무덤 보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
- 000 위원  
그렇더라도 3m가 진짜 작아요. 높이가 이 정도만 돼서 올라가는 게 3m이기 때문에 최소한 4~5m 정도는 돼야 굽기가.
- 000 위원  
그것을 수령으로 따져야죠.



○ 문화재 설계자

네.

○ 000 위원장

저기에는 2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재계획도,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 문화재 설계자

맨 끝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발표자료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000 위원장

거기에 보면 곡장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자문의견서에 곡장 비슷하게 하면 좋겠다는 전의 위원들의 자문이 있어서 제가 그냥 곡장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 문화재 설계자

유인물의 2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단면도를 추가해드렸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봉분 하부에서 곡장 상부까지의 높이가 1.65m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이해가 어려운데요.

○ 문화재 설계자

이 하부에서 이 상부까지 1.65m 정도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죠?

○ 문화재 설계자

그러니까 영역을 구역을 시키기 위해서, 상부에 흙을 돈아서 쌓아두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시설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흠으로 이 뒷부분 되어 있는 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군요.

○ 000 위원장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림 어디예요? 꼭장이라고 말하는 그 뒤에?

○ 문화재 설계자

예.

○ 000 위원

나무가 무덤 지금 상태에서 어울리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그 나무 값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저 활 위에 있는 나무 쪽 동그랗게 돌려놓은 것 그게 뭐라고요?

○ 문화재 설계자

주목나무입니다. 그것은 1.5m 높이입니다.

○ 000 위원

주목 1.5m면 꽤 큰 거예요.

○ 000 위원장

그 바로 무덤 위에 1.5m면 꽤 크죠. 이 위에 나중에 차폐수는 또 있잖아요. 이중 차폐가 되네요.

○ 000 위원

왜냐면 가보니까 저기 정자랑 이 사이 공간이 꽤 면적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나무들도 조금 자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전나무 종류는 조금 더 뒤로 해도 괜찮아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문화재 설계자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활 뒤로 하면 나무를 저렇게 쪽 하면 요새 만든 무덤들 같지 않겠어요?
- 000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나야죠.
- 000 위원  
미래를 기약해야죠.
- 000 위원장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 000 위원  
심을 때 저렇게 심기보다는 약간 들쭉날쭉하게 심어줘야지. 일렬로 저렇게 짝 심으면 보기가 좀 그렇죠. 자연스럽게 지그재그한 형태로.
- 문화재 설계자  
수목들 뒤로도 정자로 쪽으로 좀 밀치고 좀 여유 있게 자연스럽게 배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너무 인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리고 전나무도 더 심어도... 일곱 포기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어긋나게 해서 심어도 될 것 같아요.
- 문화재 설계자  
예.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세요.
- 000 위원  
생각보다 내시와 궁녀의 무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시는 승극철 하나고 궁녀, 상궁이 2개이고 영축산에서 2개가 옮겨오면 네 기짱아요.
- 000 위원장  
영축산 이전 장소는 어떻게 됐어요?
- 문화재 설계자  
그 부분들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이번에는 안 들어가요?
- 문화재 설계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2차 실시설계 할 때 아마 들어갈 겁니다.
- 문화재 설계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이것을 특화시킬 때 ‘초안산 분묘군’ 그냥 그러짱아요. 고대의 지식묘라고 그러냐? 이런 것은 정말 문화재적 가치가 엄청 큰데 분묘 양반묘도 있고 중인도 있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에 이 분묘가 사실 명확하게 매장되신 분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면 정말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민묘 스타일의 경우에는 그다지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래도 이 초안산 분묘군을 대체할 수 있는 제목을 명칭을 하나 고



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000 위원

초안산은 좋은데 분묘군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명칭을 하면... 기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산이 가지는 특징을 좀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000 위원

은평구의 이말산하고 경쟁이 붙어요. 여기에 집어 넣어버리면.

○ 000 위원장

그래도 사적이잖아요. 사적의 현상변경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올라갑니까?

○ 000 팀장

지방검토사항으로 지방에서 내려온 거예요.

○ 000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노월구청 등 관계자 퇴장)

의견을 주시죠.

○ 000 위원

비석골 근린공원 석물전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은 이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 000 위원

예.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재배치를 다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래서 이번에는 승극철 묘역 그것만 먼저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장

예. 그러면 기본설계는 6월에 만들어져서 다시 올라오겠다는 거죠?

○ 000 위원

예.

○ 000 위원장

그리고 예산은 그러면 적절하게 줄어든 거예요? 어떤가요? 3억 2천에 서... 몇 가지 빼니까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모양이죠?

○ 000 위원

거기에 비하면 저는 돈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박물관을 짓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 000 위원

여기도 석물전시관 처음에 들어왔던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 000 위원장

석물을 옮기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 텐데.

000 위원님, '개성박씨 묘는 영조시대 유명 서사가의 한 사람인 김국표가 쓴 글씨로 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 000 위원

거기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적지 확대 지정,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그것에 관련된 얘기죠?

○ 000 위원

예.

○ 000 위원

글씨가 고증이 된 거예요?

○ 000 위원

누가 썼는지 밝혀냈는데 확인을 하니까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어서 반가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게 영조대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 000 위원

예. 영조가 아끼던 서사가인데.

○ 000 위원장

개성박씨는 누구인지 알아요?

○ 000 위원

그것은 더 찾아봐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현재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000 위원

여기 보면 공사가 석물전시장 조성 없어졌고요. 석물해체 및 조립 이 부분도 없어졌고 그리고 소형안내판 8개소 이 부분도 없어졌고 시굴 및 발굴 이 부분도 없어졌고 그런데 돈은 7,000만 원 정도 없어졌네요.

○ 000 위원

많이 안 하잖아요. 나중에 할 일이 더 많으니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런데 빠진 게 시굴하고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지금 시·발굴조사랑 석물전시장 조성하는 거고 나머지는 토목공사라 돈은 아마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그다지 없었고 사실 이런 것은 계속 돈 들어가는 게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석축 설치도 그대로 들어가고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유지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 시·발굴 조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 000 위원

면적이 작아서 얼마 안 돼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금액 7,000만 원 줄여서 2억 5,000만 원. 이러면 그냥 눈감고 아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토목공사가 분량이 얼마 되고 얼마 되고 그래서 얼마다.

○ 000 위원장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시·구에서...

○ 000 팀장

당초에 올릴 때는 3억 2천에 대한 상세계획을 했는데 이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미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허가가 나와 허가에 맞춰서 다시 세부적인 예산을 만들어서 아마 계획을 세워져야 할 겁니다.

○ 000 위원

예산은 어차피 회계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요.

○ 000 위원장

예. 자, 그러면 일단 이 실시 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 없고,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보고할 때 자문한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해서 나머지 식재 관계 여러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건인데도 시간이 상당히 흘렀네요. 그리고 두 건은 통과되고 한 건은 부결됐습니다.

○ 000 위원

여기 14페이지 잠깐 보면요. 정자와 이 부분에 기존의 수목들이 굳이 썩다 절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 수목은 유지하면서 하는 게...

○ 000 위원

예.

○ 000 위원

지금 14페이지 보면 지금도 수목이 꽤 많아요. 기존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일부 정도는 보완을,

○ 000 위원

봉분에 잔디를 식재해야 하는데 응달이 지면 잔디가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 000 위원

이게 뒤쪽에 있지 바로 이렇게...

○ 000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주변에 기존에 그늘지는 나무를 제거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그루는 베어질 겁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주변에 그늘을 만드는 나무들은 제거하고 또 저쪽에서 차폐는 시키고.

○ 000 위원

예. 아침에 이게 서향이기 때문에 동쪽만 약간 아침에 햇빛을 가려주고,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18/K0518/OR1

[www.sokgisa.co.kr](http://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예. 그게 맞아요. 피해를 주는 부분만 없애고 기존에 이쪽 중간에 있는 수종들은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일부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

○ 000 위원장

여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으니깐 그런 대로 비교에 검토사항만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